

# 四象醫學

金 滿 山

四象醫學은 東武 李濟馬 先生(1833~1900)에 의하여 창안된 의학이론이다.

韓醫學은 許浚(1546~1615 명종1~광해군7) 선생의 「東醫寶鑑」에 의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東醫寶鑑」이 수천년 동안 내려온 기존의 醫學理論을 체계화한 것이라면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은 기존의 의학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先人들이 도달하지 못한 경지를 개척해냈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의학의 이론적 근거는 易學에 있으며, 易學的 理論에 의하면 우주는 단순한 機械的 存在가 아니라 기계적 작용을 包括 超越하는 意志的 存在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의 中核인 小宇宙인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意志的 存在인 精神과 物理的 存在인 肉體를 절대로 분리해서 보지 않으며, 또한 육체적 병도 증상이 나타나는 곳을 직접 치료하기보다는 발병의 근원처를 찾아 氣의 運行을 도움으로서, 모든 臟腑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스스로 낫게하는 것이다. 萬病의 근원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으며 마음과 육체는 상관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흔히 '脾胃상한다' 또는 '간뎅이가 부었다' 등의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기분 상하는 일이 있으면 脾臟과 胃腸이 상해서 역겨워지며, 화가 나면 肝에 熱이 차서 충열되고 역으로 肝에 熱이 찬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게 되는 것이다. 병의 근본 발병처에 관한 예를 들면 눈꺼풀 경련이나 偏頭痛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아픈 곳에서 찾으면 결코 근본치료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원인은 腎臟에 있기 때문이다.

四象醫學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상의학을 기존의 한의학과 비교할 때 결

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선천적 체질을 四象(太陽·太陰·少陽·少陰)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인간을 네 體質로 나눌 수 있는 存在論的 根據는 性命과 性情에 있다. 즉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稟賦받은 性命이 다르며 이에 의하여 性情의 發用이 네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인간의 體質도 太少陰陽의 네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

東洋文化의 근원적 원리가 되는 「周易」에 存在原理로서의 四象이 언급되어 있는데, 東武先生은 여기에 存在論的 根據를 두고 人間도 태어날 때부터 先天的으로 四象原理에 의하여 네가지 體質중 한가지의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四象醫學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인간을 天賦的 性命論에 바탕한 道德的 存在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人間은 단순한 肉體的 存在가 아니고 精神的 存在이기 때문에 壽世保元하기 위해서는 道德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여기서의 體質은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자손에게 유전됨을 알 수 있다)

---

1) 이점이 既存의 醫學과 비교하여 格位를 달리하는 四象醫學의 최대 優秀性이다 모든 存在萬物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現象的 物質的 次元 즉 科學的 次元에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本質的 道德的 次元 즉 哲學的(易學的) 次元에서 보는 것이다 그런데 東武는 모든 存在萬物의 存在構造, 특히 人間의 存在構造와 生命性 및 그 現象을 후자의 입장에서 보고자 하였으며, 그런 입장에서 체계화한 것이 바로 四象醫學이다 흔히 四象醫學의 優秀性은 기존의 의학에서 분별하지 못한 體質區分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東武가 四象醫學을 통하여 人間存在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 것 중에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선생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人間이 道德的 存在라는 것이다 즉 東武는 첫째 人間存在가 道德的 存在라는 점 그리고 둘째 道德的 原理에 의하여 인간의 生命現象 즉 生理 病理 등이 운용되어짐을 밝힘으로써 萬民이 壽世保元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四象醫學原理를 體系化하였다

사람들은 體質에 의하여 身體的인 것 뿐 아니라 氣質도 體質의 特徵을 갖게 되는데, 四象體質의 生理的 특징과 주의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太陽人 · 肺大肝小하여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하게 되며 지나치게 상기되기 쉬운 체질이다 항상 화내는 것을 삼가해야 하며 안정에 힘써야 한다.(生)

2 少陽人 · 肺大腎小하여 체내에 陰氣가 부족하므로 熱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니 특히 酒色을 삼가하고 경망치 말도록 노력해야 된다 (長)

3. 太陰人 : 肝大肺小하여 흡수 · 저장에 치우치고 배설이 잘 안되는 체질이니 항상 화나 즐거움을 속에 묻어두지 말고 발산시키도록 노력하고 따라서 육체도 땀을 많이 내기 위하여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收)

4 少陰人 : 腎大脾小하여 체내에 陰氣가 과잉되어 냉해지기 쉬운 체질이므로 소화장애가 자주 있다. 침체된 세밀한 성격을 버리고 활발성을 갖도록 노력하며 땀을 되도록 적게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藏)

병의 증상도 체질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땀 흘리는 증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陰人은 선천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지만, 일단 病이 나면 반드시 몸이 건조해져 땀을 흘리지 않게 되며 건강이 좋아질 때 다시 땀이 나기 시작한다. 반면에 少陰人은 평상시에는 땀이 거의 나지 않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온 몸에서 땀이 많이 나게 된다 여기에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체질에 따라서 평상시 땀이 나는 부위도 모두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체질에 따라서 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급한 병이 걸렸을 때 少陽人에게 少陰人 藥을 준다면, 병자는 치명적 害를 입게 된다(이런 점 때문에 일반 한의사들이 사상의학적 처방 쓰는 것을 두려워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 四象醫學

반면에 체질에 맞는 약을 쓰면 놀라운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으며, 소위 難治病에 대한 치료도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四象醫學은 그것을 능숙하게 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도 있는 哲學的 理解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易學積 論理體系를 터득하기 전에는 사상의학적 이론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이런점 때문에 아직까지 四象醫學이 일반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性的 次元		氣的 次元	
		五行	四德	五行	四德
哀	肺	水(哀性)	知	木(哀情)	仁(生)
怒	脾	火(怒性)	禮	火(怒情)	禮(長)
喜	肝	金(喜性)	義	金(喜情)	義(收)
樂	腎	木(樂性)	仁	水(樂情)	知(藏)

四象人 辨證論

- 太陽人 體形氣像은 腦頤之起勢가 盛壯而 腰圍之立勢孤弱하고
- 少陽人 體形氣像은 胸襟之包勢가 盛壯而 膀胱之坐勢孤弱하고
- 太陰人 體形氣像은 腰圍之立勢가 盛壯而 腦頤之起勢孤弱하고
- 少陰人 體形氣像은 膀胱之坐勢가 盛壯而 胸襟之包勢孤弱하니라
- 太陽人 性質은 長於疏通而 材幹이 能於交遇하고(哀性怒情, 肺)
- 少陽人 性質은 長於剛武而 材幹이 能於事務하고(怒性哀情, 脾)
- 太陰人 性質은 長於成就而 材幹이 能於居處하고(喜性樂情, 肝)
- 少陰人 性質은 長於端重而 材幹이 能於黨與하고(樂性喜情, 腎)

太陽人 體形은 元不難辨而 人數稀罕인 故로 最爲難辨也니 其體形이 腦頤

之起勢가 强旺하며 性質이 疏通하며 又有果斷하고 其病은 噎膈 反胃 解休證이니 亦自易辨而病未至重險之前에는 別無大證하여 完若無病壯健人也니라. 少陰人 老人이 亦有噎證하니 不可誤作 太陽人治니라. 太陽女體形이 壯實而 肝小脇窄하야 子宮不足한 故로 不能生産이니 以六蓄으로 玩理컨데 而太陽牡牛馬 體形이 壯實而 亦不能生産者하니 其理를 可推니라

少陽人 體形은 上盛下虛하며 胸實足輕하야 剽銳好勇而 人數亦多하니 四象人中에 最爲易辨이니라. 少陽人이 或有短小靜雅하야 外形이 恰似少陰人者하니 觀其病勢寒熱하여 仔細執證이오 不可誤作少陰人治니라.

太陰少陰人 體形이 或略相彷彿하야 難辨疑似로대 而觀其病證則 必無不辨이니 太陰人이 虛汗則 完實也오 少陰人이 虛汗則 大病也며 太陰人이 陽剛堅密則 大病也오 少陰人이 陽剛堅密則 完實也니라.

太陰人은 有胸膈 怔忡證也오 少陰人은 有手足 悞亂證也며 太陰人은 有目眚上引證하고 又有目睛內疼證也로대 少陰人則無此證也오 少陰人은 平時呼吸이 平均而 間有一太息呼吸也나 太陰人則無此太息呼吸也오 太陰人은 瘡疾惡寒中에 能飲冷水로대 少陰人은 瘡疾惡寒中에 不飲冷水하고 太陰人脈은 長而緊이나 少陰人脈은 緩而弱하고 太陰人肌肉은 堅實이나 少陰人肌肉은 浮軟하고 太陰人 容貌詞氣는 起居有儀而 修整正大하나 少陰人 容貌詞氣는 體任自然而 簡易小巧하니라.

少陰人의 體形은 矮短而 亦多有長大者하야 或有八九尺長大者하며 太陰人의 體形은 長大而 亦或有六尺矮短者니라.

太陰人은 恒有怯心하니 怯心이 寧靜則 居之安하며 資之深而造於道也오 怯心이 益多則放心桎梏而物化之也라. 若怯心이 至於怕心則 大病作而怔忡也니 怔忡者는 太陰人病之重證也니라.

少陽人은 恒有懼心하니 懼心寧靜則 居之安하며 資之深而造於道也오 懼心이 益多則 放心桎梏而物化之也라. 若懼心이 至於恐心則 大病作而建忘也니 健忘者는 少陽人病之險證也니라.

■ 四象醫學

少陰人은 恒有不安定之心하니 不安定之心이 寧靜則 脾氣가 卽活也오 太陽人은 恒有急迫之心하니 急迫之心이 寧靜則 肝血이 卽和也니라.

少陰人이 有咽喉證하니 其病은 太重而 爲緩病也나 不可等閒任置니 當用 參桂八物湯 或用 獐肝 金蛇酒니라.

太陽人이 有八九日 大便不通證하니 其病은 非殆證也라 不必疑惑而 亦不可無藥이니 當用 獼猴藤五加皮湯이니라.

太陽人은 小便이 旺多則 完實而無病이오

太陰人은 汗液이 通暢則 完實而無病이오.

少陽人은 大便이 善通則 完實而無病이오

少陰人은 飲食이 善化則 完實而無病이니라.

太陽人이 噎膈則 胃脘之上焦가 散豁如風하고

太陰人이 痢病則 小腸之中焦가 窒塞如霧하고

少陽人이 大便不通則 胸膈이 必如烈火하고

少陰人이 泄瀉不止則 臍下가 必如冰冷하나니

明知其人而 又明知其證則 應用之藥이 必無可疑니라.

太陽人은 恒戒 怒心 哀心하고

少陽人은 恒戒 哀心 怒心하고

太陰人은 恒戒 樂心 善心하고

少陰人은 恒戒 喜心 樂心하고

如此則 必無不壽니라

(清陽大學 教授)